

유란시아서

<< [제 157 편](#) | [부분](#) | [내용](#) | [제 159 편](#) >>

제 158 편

변모의 산

158:0.1 (1752.1) 서기 29년 8월 12일 금요일 오후, 거의 해질녘이 되어, 예수와 동료들은 **헤르몬** 산의 기슭에 이르렀다. 여기는 **유란시아**의 영적 운명을 결정하고 **루시퍼** 반란을 절차에 따라 마무리하느라고 주가 혼자 산으로 올라간 동안에 소년 **티글라스**가 한때 기다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까웠다. 오래지 않아 닥칠 사건들을 위하여 영적 준비를 갖추면서, 그들은 여기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.

158:0.2 (1752.2) 대체로, **예수**는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리 알았고, 사도들 모두가 이 체험을 함께하기를 몹시 바랐다.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기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산기슭에서 함께 머물렀다. 그러나 그들은 땅에 머지않아 나타나기로 된 하늘 존재들의 방문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을 정당화할 영적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. 동료들을 모두 거느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, **예수**는 그러한 특별한 철야 기도에 따라가는 버릇이 든 세 사람만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였다. 따라서 오직 **베드로** · **야고보** · **요한**이 이 독특한 체험의 일부만이라도 주와 함께 가졌다.

1. 모습의 변화

158:1.1 (1752.3) 8월 15일 월요일 아침 일찍, **예수**와 세 사도는 **헤르몬**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. 이때는 뽕나무 밑에 길가에서 **베드로**가 대낮에 기억에 남을 고백을 한 지 6일이 되었다.

158:1.2 (1752.4) 육체를 입은 수여 체험이 자기가 창조한 우주에 관계되다시피, 수여의 진전에 상관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, **예수**는 산으로 혼자 올라가라고 이전에 부름 받았다. **예수**와 사도들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동안에 때를 맞추어 이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, 이것이 이방인의 산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.

158:1.3 (1752.5) 한낮이 되기 얼마 전에 그들은 산으로 오르는 중턱쯤에, 목적지까지 이르렀고, 점심을 먹는 동안 **예수**는 세례 받고 얼마 뒤에 **요단** 강 동쪽의 산에서 겪은 체험에 대하여 무언가, 그리고 이 쓸쓸한 피서지를 그가 예전에 방문한 것과 연관하여 **헤르몬** 산에서 겪은 체험을 얼마큼 더 이야기했다.

158:1.4 (1752.6) 소년이었을 때, **예수**는 집 가까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, **에스드렐론** 평야에서 제국(帝國)들의 군대가 벌였던 전투를 꿈꾸곤 하였다. **유란시아**에서 자신 수여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**요단** 평야로 내려가도록 그를 준비시킬 자질을 받으려고 이제 **헤르몬** 산으로 올라갔다. 주는 이날 **헤르몬** 산에서 투쟁을 그만두고 우주 영토를 통치하는 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. 그러나 그는 **파라다이스**에 계신 **영원한 아들**의 명령에 담겨 있는 신다운 **아들** 계급의 필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했을 뿐 아니라, 또한 당면한

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충분히 만족시키려고
결심하였다. 8월의 이날, 세 사도는 그가 완전한 우주 권한의 부여를
물리치는 것을 보았다. 그가 **사람의 아들**과 **하나님의 아들**로서 땅에서
생애를 혼자서 마치도록 버려 두고 하늘 사자들이 떠나는 동안에
그들은 놀라서 구경하고 있었다.

158:1.5 (1753.1) 사도들의 믿음은 5천 명을 먹였을 때 꼭대기까지
올라갔고, 다음에 거의 밑바닥까지 빨리 내려갔다. 이제, 주가 자기의
신성(神性)을 인정한 결과로서, 열두 사도의 처지는 믿음은 다음 몇 주
동안 가장 높은 음까지 올라갔고, 다만 차츰차츰 갈수록 떨어지게 될
것이였다. 주가 부활하기까지, 세 번째 믿음의 회복은 일어나지
않았다.

158:1.6 (1753.2) 날씨가 아름다운 이날 오후 3시쯤에, **예수**는 세 사도를
떠나며 말했다: “**아버지**와 그의 사자들과 한동안 교통하려고 나는
혼자서 따로 가노라. 내가 이르노니,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고 내가
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, **사람의 아들**의 계속된 수여 임무와 관련하여
너희가 온갖 체험을 겪으면서 **아버지**의 뜻이 이루어지기를
기도하여라.” 이렇게 말한 뒤에, **예수**는 **가브리엘**과 **아버지**
멜기세덱과 함께 오랫동안 회의하려고 물러났고, 6시쯤까지 돌아오지
않았다. 그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그들이 걱정함을 보았을 때
예수는 말했다: “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였느냐? 내가 **아버지** 일을
보아야 함을 너희가 잘 아느니라.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무엇
때문에 의심하느냐? 이제 내가 선언하노니, **사람의 아들**이 너희
한가운데서, 너희 중 하나로서 일생을 끝까지 거치기로 하였느니라.
기운을 내라. 내 일이 끝나기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.”

158:1.7 (1753.3) 조출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동안에, **베드로**는 주에게
물었다. “이 산에서 형제들과 떨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남아

있나이까?” **예수**는 대답했다. “너희가 **사람의 아들**의 영광을 보고,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 것은 무엇이나 참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때까지라.” 그들은 피운 불의 이글거리는 숯불덩이 둘레에 앉아 있으면서, **루시퍼** 반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했다. 이것은 어둠이 다가오고 사도들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까지 계속되었는데, 그들이 그날 아침 아주 일찍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.

158:1.8 (1753.4) 세 사람은 거의 반시간 동안 잠에 폴아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불 튀는 소리에 갑자기 깨어났다. 너무 놀라고 어리둥절한 가운데,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다가 **예수**가 하늘 세계의 빛나는 옷을 걸친 눈부신 두 존재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보았다. **예수**의 얼굴과 모습은 하늘 빛으로 밝게 빛났다. 이 셋은 낯선 말로 이야기했지만, 그들이 말한 어떤 것을 듣고서 **베드로**는 **예수**와 함께 있는 존재들이 **모세**와 **엘리야**라고 잘못 짐작했다. 실제로 그들은 **가브리엘**과 **아버지 멜기세덱**이었다. 물리 통제자들은 **예수**의 요청 때문에 사도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도록 미리 주선하였다.

158:1.9 (1753.5) 세 사도는 너무 지나치게 놀라서 정신을 차리는 데 느렸지만, 눈부신 환상이 그들 앞에서 흐려지고 **예수**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자, 먼저 정신이 든 **베드로**가 말했다: “**예수**여, 주여, 여기에 와 본 것이 좋사옵고, 이 영광을 보아서 우리가 기쁘오이다. 우리는 영화롭지 않은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싫사옵나이다. 당신이 기꺼이 바라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하소서. 그러면 우리가 텐트 셋을 세우리니,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**모세**를 위하여 하나는 **엘리야**를 위하여 세우리이다.” **베드로**가 이렇게 말한 것은 머리가 헛갈렸기 때문에,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아무런 다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.

158:1.10 (1753.6) **베드로**가 아직 말하는 동안, 은빛 구름이 가까이 와서 그들 넷을 가렸다. 사도들은 이제 크게 놀랐다. 예배하려고 엎드리자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, **예수**가 세례 받을 때 말했던 바로 그 목소리가 말했다: “이는 내 사랑하는 **아들**이라,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.” 구름이 사라지자, 다시 **예수**는 오직 셋하고 자리에 있었고 이들에게 손을 뻗어 어루만지며 말했다: “일어나라, 두려워 말라. 너희는 이보다 더 큰 것들을 볼지니라.” 그러나 사도들은 참으로 두려웠다. 자정 조금 전에 산을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동안, 그들 세 사람은 말이 없고 생각이 깊었다.

2. 산에서 내려오다

158:2.1 (1754.1) 산을 반쯤 내려가는 동안 한 마디 말도 떨어지지 않았다. 그때 **예수**는 대화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: “너희가 아무에게도, 너희 형제들에게도, **사람의 아들**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, 이 산에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.” 세 사도는 “**사람의 아들**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”라는 주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했다. **예수**가 구원자요, **하나님의 아들**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아주 최근에 다시 다짐한 적이 있었고 바로 눈앞에서 영화롭게 그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보았는데, 이제 그가 “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”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다니!

158:2.2 (1754.2) **베드로**는 주가 죽는다는 생각에 몸서리쳤고 — 생각해 보기에 너무나 언짢았다 — **야고보**나 **요한**이 이 말씀과 관련하여 무슨 말씀이라도 물을까 두려워, 다른 데로 돌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. 무슨 다른 말을 할까 몰랐기 때문에, 머리 속에

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: “주여, 어째서 **메시아**가 나타나기 전에 **엘리야**가 먼저 와야 한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나이까?” **예수**는 **베드로**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언급을 피하려는 것을 알고서 대답했다: “**엘리야**는 **사람의 아들**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려고 정말로 먼저 오고, **사람의 아들**은 많이 고통받고 마침내 거절당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**엘리야**가 이미 왔고, 저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,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나 그에게 행하였도다.” 그때 세 사도는 **예수**가 **세례자 요한**을 **엘리야**로 언급한 것을 깨달았다. 그들이 **예수**를 **메시아**로 여기기를 고집한다면, **요한**은 예언에 나오는 **엘리야**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**예수**는 알았다.

158:2.3 (1754.3) **예수**는 그가 부활 이후에 누릴 영광을 맛보기로 구경한 것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라고 당부했다. 이제 그들이 그를 **메시아**로 받아들였으니까, 그가 이적을 행하는 **구원자**라는 그릇된 개념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할 것이라는 생각을 키워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**베드로** · **야고보** · **요한**은 이 모든 것을 머리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, 주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.

158:2.4 (1754.4) 그들이 산을 계속 내려가는 동안 **예수**는 말했다: “너희는 나를 **사람의 아들**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도다. 그러므로 너희의 굳은 결심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데 내가 찬성하였노라. 그러나 잘못 생각하지 말지니, 내 **아버지**의 뜻이 이겨야 하느니라. 이처럼 자신이 뜻하는 경향을 따르기로 하면, 너희는 많은 실망을 견디고 많은 시련을 겪을 준비를 해야 하느니라. 그러나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 것은 스스로 택한 이 슬픔조차 거치고 너희를 승리로 이끌기에 충분하니라.”

158:2.5 (1754.5) **베드로**와 **야곱**과 **요한**이, 벌어진 일을 구경하기에 다른 사도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도 준비가 더 잘 되었거나 그런 보기 드문

특권을 누리기에 영적으로 더 적합했기 때문에 **예수**가 이들을 변모(變貌)의 산으로 함께 데리고 올라가지는 않았다. 조금도 그렇지 않다. 이 체험을 하기에 열두 사도 가운데 아무도 영적으로 자격이 없음을 잘 알았다. 그래서 그는 홀로 교통하려고 혼자 있기 바랐을 때 그를 따라다니라고 배치된 세 사도만 함께 데리고 갔다.

3. 변모의 의미

158:3.1 (1755.1) 변모의 산에서 **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**이 본 것은 그 중대한 날에 **헤르몬** 산에서 벌어진 하늘 야외극을 순식간에 구경한 것이었다. 그 변모는 다음의 계제였다:

158:3.2 (1755.2) 1. **유란시아**에서 **미가엘**이 육신화하여 사는 수여 생애를 마친 것을 **파라다이스**에 계신 어머니, **영원한 아들이**^[165] 받아들인 것. **영원한 아들의** 요구 조건에 관계된 한, **예수**는 이제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확언을 받았다. **가브리엘**이 **예수**에게 그런 확신의 말씀을 가져왔다.

158:3.3 (1755.3) 2.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서 **유란시아**에서 수여를 충실히 행한 것에 **무한한 영**이 만족해한다는 증언. **무한한 영**의 우주 대표, 곧 **구원자별**에서 **미가엘**의 가까운 동료이자 항상 계시며 함께 일하는 분이, 이 경우에 **아버지 멜기세덱**을 통해서 말했다.

158:3.4 (1755.4) **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**의 사자들이 땅에서 그의 사명이 성공한 것에 대하여 제시한 이 증언을 반갑게 받아들였지만, **예수**는 **아버지**가 **유란시아**에서 수여가 끝났다고 지적하지 않은 것을 주목했다. 인격화된 **예수**의 **조절자**를 통하여 “이는 나의 사랑하는

아들이라,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” 말함으로 **아버지**의 보이지 않는 계심이 증거했을 뿐이다. 이것은 세 사도에게도 들리는 말로 말씀하였다.

158:3.5 (1755.5) 하늘에서 이 방문이 있던 뒤에 **예수**는 **아버지**의 뜻을 알려고 애썼고,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필사 수여를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다. 이것이 **예수**에게 변모의 의미였다. 세 사도에게, 변모는 **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**로서 땅에서 주가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음을 표시하는 사건이었다.

158:3.6 (1755.6) **가브리엘**과 **아버지 멜기세덱**의 공식 방문이 있고 나서, **예수**는 이들, 봉사하는 그의 **아들**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고 함께 우주 사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.

4. 간질병 있는 소년

158:4.1 (1755.7) **예수**와 동반자들이 사도들의 야영지에 다다른 것은 이 화요일 아침, 식사 조금 전이었다. 가까이 오자, 그들은 사도들 주위에 상당한 군중이 모여 있음을 헤아렸고, 곧 약 50명으로 된 이 집단이 다투고 논쟁하는 큰 소리를 비로소 들었다. 이들은 아홉 사도와 한 무리를 포함했는데, 이 무리는 **마가단**에서부터 여행하면서 **예수**와 그 동료들을 추적하던 **예루살렘** 서기관들과 믿는 제자들로 반씩 갈라져 있었다.

158:4.2 (1755.8) 군중은 수많은 말다툼에 빠져 있었지만, 으뜸가는 논쟁은 **예수**를 찾아서 그 전 날에 도착한 어떤 **티베리아스** 시민에 관한 것이었다. 이 사람, **사팻**에서 온 **야고보**는 14살쯤 되는 아들, 외아들이 있었는데, 간질로 몹시 앓고 있었다. 이 신경 질환 외에도 이 소년에게

그때 땅에 있으면서 감독 받지 않던 중도자, 떠돌아다니는 짓궂고 반항하는 중도자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고, 그래서 그 소년은 간질병자이면서 악귀에 들려 있었다.

158:4.3 (1755.9) 속이 타는 이 아버지는 **헤롯 안티파스**의 하급 관리였고 **예수**에게 이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할까 하여, **예수**를 찾아서 **빌립**의 영토 서쪽 경계지를 거쳐서 거의 2주 동안 이리저리 헤매 다녔다. 이날 정오 무렵까지 그는 사도 일행을 따라잡지 못했고 그때 **예수**는 세 사도와 함께 산에 있었다.

158:4.4 (1756.1) 이 사람이 **예수**를 찾고 있던 다른 사람들, 거의 40명을 동반하고서,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, 아홉 사도는 많이 놀랐고 상당히 동요되었다. 이 무리가 도착했을 때, 아홉 사도는, 적어도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오래 된 유혹 —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을 것인가 논의하는 유혹 — 에 이미 굴복하였다. 그들은 개별 사도들에게 배치될 그럴 듯한 자리를 놓고 다투느라고 바빴다. 그들은 다만 오래 간직했던, 물질적 사명을 가진 **메시아** 관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. 그가 **구원자**라는 그들의 고백을 바로 **예수**가 받아들였으므로 — 적어도 그의 신성(神性)이 사실임을 인정했으니까 — 주와 떨어져 있는 이 기간에,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희망과 포부에 관하여 떠드는 일에 빠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가. **예수**를 찾는, **사뻐**에서 온 **야고보**, 그리고 같이 찾던 동료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이런 토론을 하느라고 바빴다.

158:4.5 (1756.2) **안드레**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인사하려고 다가가서 말했다: “너희는 누구를 찾느냐?” **야고보**가 말했다: “선한 사람이여, 당신의 주를 찾나이다. 병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나이다. 내 아이에게 들린 이 악마를 **예수**가 쫓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.” 다음에

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이 너무 깊어서, 어떻게 여러 번 이 악성 발작의 결과로 그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는가 사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다.

158:4.6 (1756.3) 사도들이 듣고 있는 동안, 열심당원 **시몬**과 **가롯 유다**가 그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서 말했다: “우리는 그를 고칠 수 있고, 당신은 주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느니라.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요, 이런 일을 더 비밀로 하지 않느니라. **예수**는 **구원자**요, 우리는 하늘나라 열쇠를 받았노라.” 이때가 되자 **안드레**와 **토마스**는 한쪽에서 의논하고 있었다. **나다니엘**과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구경하고 있었다. 그들은 모두 **시몬**과 **유다**가 주제넘지는 않더라도 갑자기 대담해진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.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: “이런 일을 하는 권한을 받았다면 당신들이 내 아이를 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말씀을 주시기를 비나이다.” 그 다음에 **시몬**은 앞으로 나서서, 손을 아이의 머리 위에 얹고,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명령했다: “그에게서 나오라, 너 더러운 귀신아. **예수**의 이름으로 내 말에 복종하라.” 그러나 소년은 더욱 사나운 발작을 일으켰고, 한편 서기관들은 사도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했으며, 그 실망한 신자들은 이 불친절한 비평가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..

158:4.7 (1756.4) **안드레**는 이 분별 없는 노력과 그 비참한 실패에 마음이 몹시 분했다. 상의하고 기도하려고 그는 사도들을 옆으로 불렀다. 이 명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, 그들의 실패의 따끔한 맛을 통렬하게 느끼고 모두에게 덮친 부끄러움을 감지하면서, **안드레**는 두 번째 시도로 그 악귀를 내쫓으려고 했다.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을 뿐이었다. **안드레**는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가 밤 동안 아니면 **예수**가 돌아오기까지 함께 남아 있기를 청하며 말했다: “아마도 이 종류는 주가 몸소 명령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듯하구나.”

158:4.8 (1756.5) 그래서 기운이 넘쳐흐르고 날아갈 듯한

베드로 · 야고보 · 요한과 함께 **예수**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, 아홉 형제는 혼란에 빠지고 풀이 꺾여 부끄러운 가운데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. 그들은 기가 죽고 수그러진 무리였다. 그러나 **사뻏의 야고보**는 단념하려 하지 않았다. 언제 **예수**가 돌아올지 그들이 전혀 일러줄 수 없었지만, 그는 주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머무르기로 작정하였다.

5. 예수가 소년을 고치다

158:5.1 (1757.1) **예수**가 가까이 오자, 아홉 사도는 안심이 되어 그를 환영하였고, **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**의 얼굴에 나타난 명랑한 빛과 드문 열심을 보고 크게 기운을 얻었다. 모두 앞으로 달려 나가서 **예수**와 세 형제를 맞이했다.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, 군중이 다가왔고 **예수**는 물었다: “우리가 가까이 오는 동안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느냐?” 그러나 당황하고 창피를 겪은 사도들이 주의 물음에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, 병든 소년의 안달하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**예수**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: “주여, 저는 아들, 외아들이 있사운데 악귀에 들렸나이다. 무서워서 소리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, 발작할 때 죽은 사람처럼 쓰러질 뿐 아니라, 그에게 들어간 이 악귀가 때때로 그를 찢고, 때때로 물 속에, 아니 불 속에도 그를 던졌나이다. 이를 많이 갈았고, 타박상을 많이 입은 결과로 내 아이가 시드나이다. 그가 사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하나이다. 아이 어머니와 나는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되나이다. 어제 한낮 무렵에, 당신을 찾아다니다가 당신의 제자들을 따라잡았고,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사도들이 이

악마를 쫓으려고 애썼사오나 저희는 할 수 없었나이다. 그리고 이제 주여,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시겠나이까, 내 아들을 고쳐주시겠나이까?”

158:5.2 (1757.2)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, **예수**는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명했고, 한편 가까이 있는 사도들을 훑어보았다. 다음에 **예수**는 그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: “아,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, 얼마나 오래 너희를 참으리오? 얼마나 오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오? 믿음의 효과는, 의심하면서 내리는 명령에 반응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배우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?” 그 다음에, 어리둥절한 아버지를 가리키며 **예수**는 말했다: “여기로 네 아들을 데려오라.” 그리고 **야고보**가 소년을 **예수** 앞으로 데려 오자 물었다, “얼마나 오래 소년이 이렇게 앓아 왔느냐?” 아버지는 대답했다, “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사옵나이다.”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, 그 소년은 사나운 발작이 일어나서 그들 한가운데 쓰러졌고 이를 갈면서 입에 거품을 물었다. 사나운 발작이 한 바탕 연속된 뒤에 그는 죽은 사람처럼 그들 앞에 누웠다. 이제 아버지는 다시 **예수**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 애원하며 말했다: “탄원하오니,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, 우리에게 동정을 보이사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.” 이 말을 들었을 때, **예수**는 그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: “내 **아버지**의 사랑의 힘을 의심 말고 오직 네 믿음의 진실함과 그 한계를 의심하라.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.” 다음에 **사뻐**의 **야고보**는 믿음과 의심이 섞인, 오래 기억에 남을 말을 남겼다, “주여, 나는 믿나이다. 비오니,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소서.”

158:5.3 (1757.3) 이 말을 들었을 때, **예수**는 앞으로 걸어가서 그 소년의 손을 잡고 말했다: “내 **아버지**의 뜻을 따라서, 살아 있는 믿음의 명예를

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노라. 애야, 일어나라! 복종하지 않는 영아,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.” 소년의 손을 아버지의 손에 쥐어 주며, **예수**는 말했다: “네 갈 길을 가라. **아버지**가 네 혼의 소망을 허락하셨느니라.”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은, 아니 **예수**의 적들조차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.

158:5.4 (1757.4) 동료 사도들이 실패하고 좌절된 이 장면으로 그렇게 곧 돌아온 것은, 아주 최근에 변모하는 그 장면과 체험의 영적 환희를 맛본 세 사도에게는 정말로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었다. 그러나 하늘나라의 이 열두 대사에게는 늘 이러했다. 그들의 생활 체험에서 번갈아 환희에 올랐다가 창피에 빠지는 일을 거듭하였다.

158:5.5 (1758.1) 이것은 두 가지 병, 육체의 질병과 영의 병을 참으로 고친 것이다. 소년은 그 시각부터 영구하게 고침을 받았다. **야고보**가 회복한 아들을 데리고 떠나고 나서, **예수**는 말했다: “우리는 이제 **케자리아 빌립비**로 가느니라. 당장에 준비하여라.” 남쪽으로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말이 없는 무리였고, 한편 군중은 뒤에서 계속 따라갔다.

6. 셀수스의 집 뜰에서

158:6.1 (1758.2) 그들은 **셀수스**와 함께 밤을 지냈다. 그날 저녁에 뜰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가진 뒤에, 열두 사도가 **예수**의 둘레에 모이자 **토마스**가 말했다: “주여, 뒤에 남아 있던 우리는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고, 그 일로 당신과 함께 있던 우리 형제들은 크게 기운을 얻었사오나, 산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때 밝힐 수 없음을 아는 까닭에, 당신이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원하나이다.”

158:6.2 (1758.3) **예수는 토마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:** “너희 형제들이 산에서 들은 것은 모두, 때가 되면 너희에게 드러내겠노라. 그러나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시도한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실패하였는가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. 너희의 주와 동반자, 곧 너희 형제들이 **아버지**의 뜻을 더 알기를 구하려고, 그리고 그 신성한 뜻을 효과적으로 행할 지혜를 더 풍부히 받으려고 어제 건너편 산으로 올라간 동안에, 여기 남아서 지키던 너희는 정신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도록 애쓰고 **아버지**의 뜻을 더욱 충만히 계시받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, 신앙을 뜻대로 연습하지 못하였도다. 그러나 그 대신,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좋은 자리 — 너희가 고집해서 생각하는 물질적인 현세의 나라 — 를 찾는 잘못된 옛 버릇에 빠졌느니라.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가 거듭 선언하였는데도, 너희는 이 그릇된 개념에 매달리는도다.

158:6.3 (1758.4) “너희의 믿음이 **사람의 아들**의 신분을 파악하기 무섭게, 현세의 높은 자리를 바라는 이기적 욕심이 몰래 돌아와서,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클 것인가 너희끼리 논의에 빠지느니라. 너희가 고집하여 생각하는 그런 하늘나라는 없고, 언제라도 존재하지 아니하리라. 내 **아버지**의 영적 형제들이 사는 나라에서 제일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눈에 작게 되어야 하고, 것처럼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냐? 영적 위대함은 **하나님** 같이 이해하는 사랑에 있고, 자기를 높이려고 물질적 힘을 즐겨 쓰는 데 있지 않느니라. 너희는 시도한 것에 철저히 실패했고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았느니라. 신성한 동기가 없었고 영적 이상(理想)이 없었으며 이타적 포부가 없었느니라. 너희의 과정은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았고 달성하려는 너희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**아버지**의 뜻이 아니었도다.

158:6.4 (1758.5) “**아버지**의 뜻을 따를 때를 제외하고, 확립된 자연 현상의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리오? 영적 능력이 없는 마당에 너희는 영적 일을 할 수도 없느니라. 이 중에 어느 것도, 그 잠재성이 있을 때에도, 셋째이자 필수인 그 인간 요소, 팔팔한 믿음을 가지는 개인적 체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느니라. 너희는 하늘나라의 영적 실체들을 얻기 위한 유혹으로서 물질적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? 특별한 일이 눈에 보이게 전시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사명의 영적 중요성을 깨달을 수 없느냐? 모든 물질적 표현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관 없이, 너희가 하늘나라의 높은 영적 실체들에 집착하기를 언제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?”

158:6.5 (1759.1) **예수**는 이렇게 열두 사람에게 말씀하고 나서, 덧붙였다: “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서 쉬라, 내일 우리는 **마가단**으로 돌아가서, **데카폴리스**의 여러 도시와 마을로 가는 전도 사업에 관하여 의논할 것임이라. 오늘 얻은 체험의 결론으로, 내가 너희 형제들에게 산에서 말한 것을 너희 하나하나에게 선언하노라,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라: **사람의 아들**은 이제 수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느니라. 우리가 바야흐로 어떤 수고를 시작하고자 하나니, 나를 죽이려 애쓰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때, 이 수고가 너희의 믿음과 헌신의 마지막 큰 시험으로 곧 이끌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기억하여라: **사람의 아들**은 죽음에 던져지겠으나 다시 살아나리라.”

158:6.6 (1759.2) 그들은 그날 밤, 슬프게 물러났다. 어리둥절했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. 그가 말씀하신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묻기 두려웠지만, 그가 부활하신 뒤에 이 모두를 상기했다.

7. 베드로의 항의

158:7.1 (1759.3) 이 수요일 아침 일찍, **예수**와 열두 사도는 **케자리아 빌립비**를 떠나서 **벧세다 줄리아스** 가까이 **마가단** 공원을 향했다. 사도들은 그날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,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갈 준비가 되었다. 무딘 **알패오** 쌍둥이조차 **예수**의 죽음에 관한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. 남쪽으로 내려가자, **메롬의 물** 바로 건너서, **다마스쿠스** 길에 이르렀다. **예수**는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이 뒤에 금방 따라올 것을 알았고, 이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**갈릴리**를 거치는 **다마스쿠스** 길로 **가버나움**까지 계속 가라고 그들에게 지시했다. **예수**가 이렇게 한 것은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**예수**와 사도들이 **헤롯 안티파스**의 영토 지나기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**요단** 강 동쪽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. **예수**는 이날 사도들하고만 있을까 하여 따라오는 비난자들과 군중을 피하려고 애썼다.

158:7.2 (1759.4) 그들은 점심 먹을 때가 훨씬 지나기까지 **갈릴리**를 통하여 계속 여행했고, 그때 기운을 차리려고 그늘에서 멈추었다. 음식을 먹고 난 뒤에, **안드레**는 **예수**에게 말했다: “주여, 내 형제들은 당신의 깊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나다. 당신이 **하나님의 아들**임을 완전히 믿게 되었사운데, 이제 우리를 떠나는 것, 죽는 것에 대하여 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나이다.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없나이다. 당신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이까?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,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간청하나다.”

158:7.3 (1759.5) **안드레**의 말에 대답하여 **예수**는 말했다: “형제들아, 내가 **하나님의 아들**이라고 너희가 고백한 까닭에, 땅에서 **사람의 아들**의

수여의 종말에 관하여 진실을 너희에게 비로소 펼쳐 보일 수밖에 없노라. 너희는 내가 **메시아**라는 믿음에 집착하기를 고집하고, **메시아가 예루살렘**에서 보좌에 앉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는도다. 그러므로 내가 고집하여 이르노니, **사람의 아들**이 얼마 안 있어 **예루살렘**으로 가서 많은 고난을 견디고, 서기관과 장로와 주사제들에게 거절당하며, 이 모든 일이 있는 뒤에 죽음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. 나는 너희에게 비유를 이르지 않노라.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때 이를 위하여 너희가 준비될까 하여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이르노라.” 그가 아직도 말씀하는 동안, **시몬 베드로**가 성급하게 다가와서, 손을 주의 어깨에 얹고 말했다: “주여, 우리가 당신과 다투지 않게 하소서, 하오나 내가 선언하오니, 이런 일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이다.”

158:7.4 (1760.1) **베드로**는 **예수**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. 그러나 주의 인간 성품은 좋은 뜻을 가진 이 사랑의 말 속에, **파라다이스 아버지**의 뜻대로 땅에서 수여 생애를 끝까지 추구하는 정책을 바꾸라고 유혹하는 미묘한 제안이 있음을 깨달았다. 사랑에 넘치고 충성스러운 친구들이지만 그를 말리려는 제안을 수락하는 위험을 알아차렸기 때문에, **베드로**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: “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. 너에게는 적, 유혹자의 기운이 도는구나. 이런 식으로 말할 때,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적 편에 있도다. 이런 식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**아버지**의 뜻을 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느니라. 사람의 길이 아니라, 오히려 **하나님**의 뜻을 살피어라.”

158:7.5 (1760.2) **예수**의 따끔한 꾸지람에 처음에 충격을 받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린 뒤에, 여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주는 더 말씀했다: “누구라도 내 뒤를 좇으려 하거든, 자기를 돌보지 말고 날마다 자기

책임을 지고 내 뒤를 따를지이다. 누구든지 이기심으로 자기 목숨을 건지려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진대,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,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지니라.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?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대신 바치리요? 이 죄 많은 위선의 세대에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 말라. 마찬가지로, 내가 모든 하늘 무리가 있는 가운데 내 **아버지** 앞에 영화롭게 나타날 때,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를 인정하리라. 그런데도 이제 내 앞에 서 있는 너희 중에 여럿은 이 **하나님**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기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지니라.”

158:7.6 (1760.3) **예수**는 그를 따르려면 걸어야 할 고통스럽고 충돌하는 길을 이렇게 열두 사도에게 분명히 밝혔다. 이 말씀은 자신들이 명예의 자리에 오르는 세상의 나라를 꿈꾸기를 고집하던 이 **갈릴리** 어부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! 그러나 그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이 용감한 호소에 움직였고, 한 사람도 그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. **예수**는 싸움터로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,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. 그는 오직 용감히 따르기를 요구했다.

158:7.7 (1760.4) 열두 사도는 **예수**가 죽는 가능성에 대하여 그가 그들에게 무언가 일러주고 있다는 생각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. 그의 죽음에 대하여 말한 것을 겨우 어렵듯이 알아들었고, 한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관한 말씀은 도무지 그들의 머리 속에 기록되지 않았다. 세월이 지나자, **베드로** · **야고보** · **요한**은 변모의 산에서 겪은 체험을 돌이켜보고 이 문제들 중 어떤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.

158:7.8 (1760.5) 주와 가진 모든 관계에서, 열두 사도는 겨우 몇 번만, 그 성난 눈을 보았고 이 경우에 **베드로**와 나머지에게 쏟아진 것처럼, 금방 꾸짖는 말씀을 들었다. **예수**는 언제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에

참을성을 보였지만, 땅에서 그의 여생(餘生)에 대하여 **아버지**의 뜻을 절대로 수행하는 계획에 상반되는 절박한 위협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. 사도들은 글자 그대로 깜짝 놀랐다. 놀라고 무서워졌다. 슬픔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. 주가 무엇을 견디어야 하는가, 그들이 함께 이 체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으나, 그의 말년에 임박한 비극을 가리키는 이 초기의 힌트가 있고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그들은 다가오는 이 사건들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.

158:7.9 (1761.1) 말없이 **예수**와 열두 사람은 **마가단** 공원에 있는 그들의 야영지를 향하여 떠났고, **가버나움** 길로 갔다. 오후가 얼마 지나자, **예수**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자기들끼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편 **안드레**는 주와 함께 이야기했다.

8. 베드로의 집에서

158:8.1 (1761.2) 땅거미가 질 때 **가버나움**으로 들어가면서, 그들은 저녁을 먹으려고, **시몬 베드로**의 집으로 바로 통하는, 잘 다니지 않는 통로로 갔다. **다윗 세베대**가 그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나르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은 **시몬**의 집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. **예수**는 **베드로**와 다른 사도들을 올려 보면서 물었다: “너희가 오늘 오후에 함께 걸으면서, 너희끼리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였느냐?” 사도들은 입을 다물었다. 그들 가운데 여럿이, 다가오는 나라에서 그들이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, 누가 가장 클 것인가 따위에 관하여, **헤르몬** 산에서 시작한 토론을 계속했기 때문이다. **예수**는 그날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차지했는가 알았기 때문에, **베드로**의

어린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손짓하여 부르고 그 아이를 그들 사이에 앉히고 말했다: “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아이와 더욱 같아지지 아니하면, 하늘나라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리라. 자기를 낮추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리라. 그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받아들이며,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또한 받아들이느니라.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, 이 좋은 진리를 육체를 입은 형제들에게 베풀기를 구하라.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구나,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좋으리라. 손으로 행하는 일이나 눈으로 보는 물건이 하늘나라로 진보하는 길에 죄를 짓게 하면, 간직한 이 우상들을 희생할지니, 인생에서 아끼는 많은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, 이 우상들에 집착하고 바로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닫는 것보다 좋으니라.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가 이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처리할지니, 저희의 천사들이 언제나 하늘 무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까닭이라.”

158:8.2 (1761.3) **예수**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, 그들은 배에 들어가서 맞은편에 **마가단**으로 저어갔다.

[165]: 158:3.2 삼위일체에서 **영원한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와 함께 무한한 영을 낳았으므로 어머니**라는 뜻.
